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예정자(M,div) 32명, 강도사 고시 기념촬영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날 강도사 고시에는 제1부 개회예배, 제2부 필기고사, 설교실기, 면접에 이어 제3부 폐회식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이번 32명의 강도사 고시를 시점으로 교단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를 위하고 총회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또한, 본 교단은 보수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버팀목이자 교계의 표준총회인 웨신에 몸담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큰 꿈을 안고 비상하자며 격려했다.

이날 고시부장 김안식 목사는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들을 선 정해 주셨고, 웨신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시행해 되었다며 표준총회웨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기대감을 물론 이들 후배들이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에 큰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될 것을 믿는다'며 축하했다.

또한 이날 강도사 고시를 마치고 나온 김선경씨는 이번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웨신신학생들이 웨신총회를 신뢰하고 목양의 꿈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데 매진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웨신카페의 향기롭고 따끈한 커피와 다과로 고시생들을 위로하고 목사안수, 가이드라인을 통한 진로에 대해 적절한 안내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총회장 이영풍 목사를 비롯한 총회 임원, 증경라인, 노회장 등 교계지도자들이 각각 고시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웨신총회 2017년 32명 강도사고시 “교단성장에 청신호”

웨신총회에 몸담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큰 꿈을 갖자



총회장 이영풍 목사



고시부장 김안식 목사



김선경 강도사 고시생



총무 신언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고시부는 지난 2월 10일 (금)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웨

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 예정자(M,div) 32명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1부 예배에 고시부 서기 교체만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

어 부총회장 하종우 목사가 기도 를, 고시부장 김안식 목사(제1부총 회장)는 담전 4:12-16절을 주제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라며 설

교했다.

고시부장 김 목사는 '믿음의 본 을 보여야 하며, 말과 행실, 사람 과 믿음과 정절로서 영혼 구원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진력할 것'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져야 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종들이 되라며 직시했다.

이어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환 영사에서 강도사 고시에 응한 여 러분을 보니 마치 시집간 딸을 맞 는 심정이라며 강도사 고시에 평 안한 마음으로 응시하며, 함께 손 잡고 표준총회를 만들어 한국교계에 이바지하는 일에 주역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총무 신언창 목사가 광고를, 직전회장 신동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 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2017년도 강도사 고시 합격



이영풍 목사
(빛교회)



김안식 목사
(설만한물가교회)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하종우 목사
(바울선교회)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박우제 목사
(영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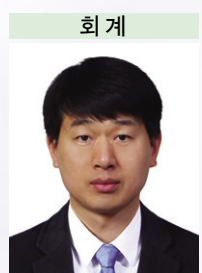
김명환 목사
(생명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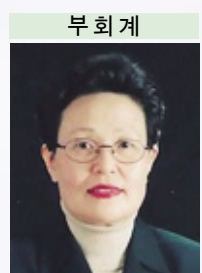
오상열 목사
(천안승리교회)



김기훈 목사
(평강교회)



김정욱 목사
(충일교회)



최선녀 목사
(소망교회)

본 총회는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버팀목이자 교계의 표준총회인 웨신에 몸담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큰 꿈을 안고 비상한 모범총회이다.

박 대통령 24시간 국정에 올인 증언

해외순방 때도 박 대통령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워크홀릭’ 수준으로 일을 했는데 “관저에서 쉬거나 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매도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업무가 굉장하, 진짜 과중하다”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관저에서 쉬거나 하고 미용시술 받고 맨날 해외순방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너무도 매도되고 회화화되서 그 부분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헌법재판소 1층 대입관실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이 하루에 몇 건의 문건을 검토하고 의논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 질문이 나오자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며 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는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이라며 “각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이 굉장하, 하루 100페이지씩 올라가는데 대통령은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다 챙기고 밑줄 치면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주말에도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고 했다. 그는 “주말 같은 경우에도 (박 대통령으로 부터) 아침 7시나 7시30분이 되면 전화가 온다”며 “그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각종 보고서를)보다가 너무 일찍 전화를 하면 실례가 될까 봐 기다리다가 딱 그 때가 되면 전



화를 한다”고 말했다.

해외순방 때도 박 대통령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유럽, 미국으로 외국 순방을 가시면 비행기 내에서 12시간 이상 보내는데, 이 때도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 자료를 체크하고 수정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비서실 등에서 올린)자료 등을 그냥 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상회담에 필요한 말을 자료를 새로 작성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세일즈를 해야 하는 사안, 기업 현안과 관련해서는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외교부장관 등에게 세세한 것 하나까지 지시를 꼼꼼히 내리는 것을 보고 “저렇게까지 다 챙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 만찬 자리에서도 뭐 하나라도 기업에 도움되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일즈를 하느라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이) 국민 만찬 끝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통 해외 순방 한번

갔다오면 (박 대통령)이 하루 이틀은 완전 탈진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에 머물 때도 (기력이 빠져)멍하게 맞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전혀 없이 관저에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날 (다른 일정을) 뺐 것은 내가 뺐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 즈음에 피곤해 하

기 때문에 컨디션을 회복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날 일정을 안 잡겠다고 보고드리고 일정을 뺐는데 공교롭게 그날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특별히 피곤할 일이 있었나”란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업무가 굉장하, 진짜 과중하시다”면서 “제가 가슴아픈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이 요즘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관저에서 쉬거나 하고 미용시술 받고 맨날 외국에 해외순방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것처럼 완전히 매도되고 회화화돼서 그 부분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업무에 피곤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좀 쉬어야 창의성도 나오는데 놀지 않고 일만 해서 문제”라고 했다”며 “만기진탐식으로 하나하나 본인이 다 챙기는 게 문제이지 뭘 안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유학생 동원된 촛불집회(?)중국 개입설 확산

우리 국민만 몰랐다니.. 사실이라면 개탄(慨歎)

최근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의 글 그리고 이 글과 관련된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의 연계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중국정부의 공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접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

사드관련 보도 내용을 담은 중국 신문

기사에 의하면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하여 왕이 외교부장을 포함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한국을 이간질 하는 공작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금 한국에는 6만 여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이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들 중국 유학생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국 유학생과 우리 대학생들은 구분하기 어렵다는 글과 함께 “우리 국민들은 모

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한 중국 유학생 때문에 북한은 유사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국 유학생이 한국 안보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이 기사에 올라온 촛불 사진을 소개하는 글에 “우리 국민들은 중국이 주한 중국유학생들을



[출처] 중국 유학생 동원된 촛불집회(?)중국 개입설 확산. 우리 국민만 몰랐다니.. 사실이라면 개탄(慨歎)

이 시위에 참여시켰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우리 안보의 현안 중에 현안인 북한 핵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불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어떻게 우리의 내정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정작 왜 몰랐을까? 라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것과 관련하여 작년 11월부터 불기 시작한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중국 유학생의 개입이란 충격적 소식은, 숨겨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서야 드러나게 된 것인지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의 수많은 요구에 당당히 들어가는 사드반대, 과연 이 문제에 중국이 주한 중국 유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촛불집회를 취재하던 수많은 언론과 그 언론사의 소속 기자들은 이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그럼에도 이런 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안보에는 생사가 얽다. 라는 말! 안보관련 이슈가 터질 때 마다 정치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정작 북핵 관련 해법에는 정당한 타협점 없는 불협화음을 이제는 단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 래서인지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 유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이 씁쓸한 기사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향한 또 다른 분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인위(安危)가 달린 문제를 우리 국민만 모르고 있다는 이 말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내만의 생각일까? 지금이라도 또 다른 국치(國恥)를 막기 위해 안보, 외교문제 만큼은 모든 국민이 한뜻이 되어야 할 것이다.

3야 촛불이 초래할 파국에 책임져야

더민주 추미애 ‘당원총동원령’, 장외폭력투쟁 혼란 및 국가위기조성

작년 연말을 기해 촛불세력이 태극기에 압도당하기 시작하면서 탄핵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세를 역전시켜 불 요량으로 주말인 2월 11일, 강남에서 청와대까지 1박 2일 철야 행진 시위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지난 2월 4일 태극기에국 집회에는 육사와 3사 ROTC는 물론 공군과 해군 예비역장교들이 대거 참여를 계기로 대세가 기울자 그 동안 탄핵을 기정사실처럼 믿고 여유를 부리던 야당 지도부와 종북진영이 총격에 싸여 다급해진 나머지 악수(惡手)를 두게 된 것 같다.

3야 촛불 제 철회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특검 기간연장 ▲대통령의 자진퇴진 압박 등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 하는데 더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희회를 일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술수로 감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다 근본적 목적은 국민여론에 “촛불이

죽지 않았음”을 알리고 현재로 하여금 탄핵을 인용토록 압력과 위협을 가하면서 민노총과 ‘퇴진대책위’ 등 종북세력과 결속을 강화하고 3야 간 공조(共助)를 다져 세 확장을 꾀하는 한편, 전세만화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투쟁전략과 수법으로 나올 것인가? 야권 내 투쟁가들은 세상을 혁명의 동맹자와 투쟁의 대상으로 갈라놓고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에 만고여유를 부리던 야당 지도부와 종북진영이 총격에 싸여 다급해진 나머지 악수(惡手)를 두게 된 것 같다.

3야 촛불 제 철회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특검 기간연장 ▲대통령의 자진퇴진 압박 등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 하는데 더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희회를 일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술수로 감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다 근본적 목적은 국민여론에 “촛불이

을 조성하려는 술수로 볼 수도 있다.

이 틈을 타서 일부 극렬분자들이 청와대 월담으로 총격을 유도하거나 총리공관과 정부종합청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기습 불상사를 유발, 이로써 민심을 격앙시켜 폭동소요봉기의 계기를 조성하려 들 수도 있다.

촛불시위대의 심야 도심행진간 다키는 대로 폭력을 휘둘러 공권력 무력화와 공포심 유발 등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 그로 인한 피해와 원성을 마쳐 “탄핵기각을 우려하는 시민의 반감이 폭발한 것으로 포장 민심선동에 악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우려 되는 바는 국면 전환과 반격의 계기 마련을 위해 태극기행진을 방해 대규모 충돌을 유발하거나 ‘불화살’ 작전과 ‘시신투쟁’ 같은 극단적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점이며, 전교조 등 떠밀려 촛불을 들고 나섰던 초·중·고 어린학생을 희생시켜 폭동의 불씨로 삼는 만행까지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기행증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파종진목사 이사장: 조강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빌딩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i@naver.com
-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 ▶H.P : 010) 5468-6574
-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 ▶1년 구독료 : 48,000원
-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부터 출애굽 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여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주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 초 등 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새끼기도회	오후 9:00	중 . 고 등 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지저스타임즈(JTNTV)신문방송 신년기도회 가져

28개 전국지사 및 MOU를 체결한 신문방송과 해외 지사의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3일(금) 오전 11시 의정부 소재 예복교회(소진우 목사/본지 사장)에서 지저스타임즈(JTNTV)신문방송은 먼저 1부 신년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노병주 목사(상임이사/취재부장)의 대표기도와 도광을 목사의 찬양(찬양선교사), 꾸미오리 기독교무용단(김창숙 목사/공동회장)의 찬양과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본지 부이사장이며, 언론협 부총재 정대성 목사(삼성중앙교회)는 빌4:6-7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자원을 가지고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며 말씀을 전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되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



야 한다" 또한 "2017년 지저스타임즈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는 긍정적인 신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재성 목사(운영이사)의 색소폰연주로 봉헌찬송을, 백운성 목사(안산지사장/총무국장)가 봉헌기도를, 한홍교 목사(한기보협 상임이사/호헌총회장)가 축사를,

이흥희 목사(국제예능부흥사부총재)가 권면하고, 소진우 목사(사장/연수원장)와 정기남 목사(대표이사/상임대표)가 각각 신년인사로 감사했다.

이날 미 LA 크리스천헤럴드 및 CHTV18.10 신문방송사장 김창호 목사 외 직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축사를 전했다. 지저스타임즈가 2017년에는 더욱 발전하며 사랑과 협력을 강조하겠다고 또 지난 1년

동안 지저스타임즈에서 주님의 복을 위하여 애쓰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온 사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와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신문사와 지사를 위하여, 문서 선교와 방송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국내외 50여 지사를 위하여, 미국 LA 크리스천헤럴드 및 CHTV18.10 휴사를 위하여, 국가 안녕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예복교회와 회원들 교회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발행인)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의 기도으로 이사회를 열고, 새롭게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신문사를 섬기며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히고, 이혜진 목사(부사장)의 기도으로 이사회를 마쳤다.

한편 예복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내외의 정성을 다한 애찬을 통하여 신문방송사의 모든 직원과 이사진들은 덕담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표창원을 국회에서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들은 대오 각성하라

국회에서 대통령 성희롱 그림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 국회의원들 역시 국가원수 모독과 성희롱을 방조한 공범자이다. 입법을 국회에서 자행되는 법법행위를 방치한 행위가 바로 대한민국 국회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국회의원은 대오 각성하라.

독교인들을 대표하여 회대의 국가원수모독과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자 한다. 만약 이런 자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정당과 대선후보를 우리는 공범자로 규정하며 단호히 거부함을 밝히고 해당 정당과 대선후보에 대하여 거부운동에 들어갈 것을 밝힌다.

나라사랑기독인연합
공동상임의장 권영해 류광수

국가원수 모독과 여성대통령 성희롱 관련자 처벌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대국적 행위에 국민은 분노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자 국민을 대표한다.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비록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현재의 관계를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를 넘는 대통령 비하와 모독은 물론 성희롱 그림전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예술을 빙자한 국가원수모독죄, 성희롱 범죄를 검열은 즉각 철폐하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이 기소한 전시회에 내걸린 여성대통령의 누드화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천박한 것으로 예술을 빙자한 국가원수모독이자 성희롱 범죄로서 경찰과 검찰은 즉각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광화문 촛불시위 대통령 성희롱모사 갈개 그림 관련자를 즉각 체포하라

또한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 대통령의 성행위가 묘사된 갈개그림이 등장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이처럼 대통령을 성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 할수 있단 말인가? 경찰과 검찰은 즉각 이들을 음란물공연 등의 범죄로 즉각 체포하라 대통령 신분 이전에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마저 훼손한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은 인격살인 중대 범죄이다. 경찰 검찰을 마땅히 범죄로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

성명대는 대통령 누드화 작가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

대통령 누드화를 그린 작가가 성명대학 교수로 재직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대학당국은 해당교수를 즉시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교수는 송고한 짧은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으로 송고한 짧은 병사들의 희생을 북한 옹호와 맞바꾸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에서 평행한 사고와 비윤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를 아카데미전당에서 퇴출시킬 것을 촉구한다.

표창원을 즉각 국회에서 추방하라!

이번 대통령 누드화 전시를 기획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서 여성대통령 회화한 성희롱 전시회를 열도록 기획한 표의원은 국가원수 모독과 성희롱을 배후에서 기획한 자료로서 결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에 이영훈 목사 연임

한기총부터 새롭게 개혁되고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겠다 다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8회 총회가 1월 31일(화)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 총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박수로 추대되고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최성규 목사(한기총 중경대표회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는 총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한경직·조용기·정진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기총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어려운 중에 대표회장을 맡으셔서 잘 이끌어 주셨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에 앞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 한기총부터 새롭게 개혁되고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야겠다"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을 강력하게 대처해 막

아내며, 불밀듯 밀려오면서 한국 전통문화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이슬람과 동성애 등 모든 사조를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기독교가 한 마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회적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며 "그런 의미에서 28년째 한기총 창립 이후 함께하면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주신 모든 교단 임원 회원 여러분들과 단체 임원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총대 333명 중 참석 207명, 위임 28명으로 성수가



되었다. 전회의록 채택, 2016년도 경과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후 대표회장 선출의 건을 다뤘다.

"단독 후보이므로 박수로 추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잠시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거수투표 결과 '추대' 의견이 181명으로 나오면서 기립박수로 이 대표회장이 추대됐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당선 후 "박수 추대에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깊이 담아,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한기총 발전을 위해 일하면서 소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남은 안건은 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총회는 폐회했다.



육군 6사단, 11사단 27사단 해체, 강릉.원주 국군병원 폐쇄결정

국가 위기 군 병력 감축 소식에 접경지역 긴장감 고조

미래 군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방부가 도내 접경지역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철원 지역에 주둔 중인 육군 6사단이 경기 포천 일대로 옮겨갈 것인 예상이나오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 홍천은 11사단, 화천은 27사단의 해체 소식이 알려졌고 인제군은 2사단 2개 연대가 양구 지역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됐다.

양양의 8군단 역시 해체되고 원주의 1군사령부는 서부전선을 총괄하는 3군사령부와 통합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군사령부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육해공군 주둔 병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간 2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나다.

접경지역 1개 사단이 연간 1,000억원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국방개혁 계획상 부사관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실질적인 소비층이 늘어 지역 경제 타격은 최소화 될 것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각 지역별영회는 국방부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강릉과 원주 국군병원도 폐쇄가 결정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2017년 표어: 다시 한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아람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창49:24)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TV, 신문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 오전 9시30분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7시	중·고등부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미사(도)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일미사(예)	토요일 오후 10시		
유치부	오전 11시		

지향하는 4대 목표

- 예배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선교활동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부흥성장의 모범이 되는 교회
- 축복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신앙생활 수칙

- 절대 하나님 중심
- 절대 말씀 중심
- 절대 교회 중심
- 위계 질서 존중
- 나눔 실천의 생활화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장암동) 전화:02)934-1232

http://www.mokpojuan.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주소: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산정동)
☎(061)272-4908, 278-0692, 팩스:(061)278-0693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상런

섬기는 분

담임	모상런 목사
부목사	모정선 김길현 박민수 모성은 (은퇴)장창화
협동목사	추정의 진안순 윤영옥
파송전도사	파송전도사: 임재선(선교지베트남) 김은미(선교지베트남) 안윤기(선교지캄보디아)
파송전도사	김진희(선교지캄보디아)김경진(선교지적도)나
교육전도사	면(베트남신학교유학)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한기총, 한교연 내방 동성에 지지하지 않지만 헌법과 국가인위원회 법은 따라야!

문 전 대표는 13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 오전 11시부터 30분 간격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문 전 대표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기에 앞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당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분발해 달라”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멈춰질 수 있도록 특별히 통합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전 대표는 “그 동안 정치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이 대표회장은 동성애에 대한 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을 만난 문 전 대표는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정서영 대표회장은 기독교계의 가장 큰 이슈인 동성애 문제와 종교인과 세 문제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이 어떤지, 민주당의 당론이 어떤지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면서 “다만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된 것처럼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동성에 쿨어 축제를 서울광장에 허가하는 바람에 마치 민주당이 동성애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듯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시측에서는 성소수자라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광장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윤재 정 대표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석한 황인찬 목사가 “민주당 의원 중에 총선과정에서 지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당선되고 난 후에 보란 듯이 입장을 바꾸어 SNS 등에 기독교계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의원을 보면서 배신감과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한 자 문 전 대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방문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독교신우회)은 “여야 기독교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며 “법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교계가 격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표의 교계 연합기관 방문에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독교신우회), 송기현 의원, 박찬대 의원, 나종민 교수(남서울대) 등이 배석했다.

대한민국의 5.18 북한군 vs 중국의 천안문 학살 주적 북한은 편들어도 5.18 북한군 이야기는 절대로 안 되는 나라

탈북자 증언도 5.18 북한군 이야기는 철저하게 봉쇄하는 나라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TV조선의 “보라매클럽”은 사실상 탈북자들의 대표적 증언대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군인 단체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원들이 증언하는 “5.18 북한 특수군”에 대한 증언은 일체 금지되고 무시되고 있다. 지금부터 36년 전에 일어났던 남북합작 대한민국 정부전북 폭동반란 5.18을 민주화는 동이라고 인민재판으로 판결해 놓고 그 왜곡날조 역사가 뒤집힐까 온 나라가 전전긍긍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 이야기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통령도 정부도 5.18 북한군은 절대 금지어가 되어 있는 나라
1948년 이승만 국부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세계만방에 공표한 날을 대한민국 건국 절로 기념하지는 주장에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세력이 기겁을 하고 날뛰면서 반대했는데, 그 세력이 5.18 빨갱이 세력과 함께 5.18 북한군 개입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빨갱이들에게 완전하게 점령 당해서 그 역작들이 주장하는 대로 꺾이지 않겠어. 그러면서도 북한군은 대통령이 라고 권위를 세운다고 국가 안보나 대한민국 미래나 거창하게 떠들어 댔었다. 참으로 가소롭고 애처롭다.

주적 북한은 편들어도 5.18 북한군 이야기는 절대로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주적 김일성 왕국이 저질렀던 5.18 북한군에 의한 참략전쟁의 역사를 파헤치려는 학자들의 입을 막는데 발 벗고 나서는 박근혜 정부가 가소롭게도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태연스럽게 말한다. 오죽 대통령이 못나고 시시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라는 공인 된 자격증을 받은 자들이 민변이라는 단체로 활동하며 1,000여 명이 합세하여 탈북자들이 자발적 탈북인지 국정원의 납치였는지 법원에서 공표하도록 북한을 대변하겠는가?

“천안문 학살”, “5.18 북한군” 논쟁 못 하는 중국과 한국은 언론독재 쌍둥이나라

이런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는 애초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2013년 5월 TV조선과 채널A가 거의 동시에 터뜨렸던 “5.18 북한특수군”에 대한 방송이 나가자 이 땅의 빨갱이들이 발작을 일으켰고 박근혜 정부는 그들의 발광에 기겁을 하여 항복하고 말았다. 성역을 둔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는 없다. 일당 독재 중국이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일체 금지하듯이, 대한민국은 5.18 북한군 침투에 대한 언급이 언론에 일체 금지어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는 일당 독재 중국, 세습독재 북한 체제와 다를 것이 없다.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들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 “1980년 5.18에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하여 후방교란 작전을 수행했었다”라는 논쟁조차 못하는 대한민국 방송과 신문들은 모두 5.18 빨갱이 세력에 항복해버린 언론들이다.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만토스

안산시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발대식

하나되자! 부활하자! 4월16일 / 가자! 모이자! 와-스타디움으로!

지난 2월 6일(월) 오전 11시 안산에 소재한 늘푸른교회(정신복 목사)에서 안산시기독교연합회(이하 안기연) 주관으로 2017년 안기연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발대식을 안기연 회장 조종제 목사를 비롯하여 회원 60여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가지게 되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안기연은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종교 다원주의의 물결로 인한 기독교의 유일성 부정,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및 인권조례안 시행유도와 물밑 듯 밀려오는 이슬람 세력과 이단들의 도전 등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해오는 외부의 적을 막아내고,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며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하여 안산의 교회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한다.

안기연은 사무엘 때 미스바로 모였던 것처럼, 에스라 때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던 것처럼 안산의 기독교는 오는 2017년 4월 16일 부활주일에 와-스타디움으로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려고 한다며, 이



러한 시대에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면 영적 대적의 세력들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안산에는 약 970여 교회와 있고, 15만 여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며,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안산시 기독교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재도약을 하는 기회로 삼자고 다짐하며, 4월 16일(주일) 오후 2시 30분에 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연합예배에 모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하였다.

안기연 회장인 조종제 목사(성문교회)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하여 첫째, 안산의 970여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므로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둘째, 안산시 기독교가 하나되어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며, 셋째, 안산의 아픔을 치유하며, 합심기로 안산의 어두움의 영들을 물리치고, 안산 복음화에 더욱 불을 붙이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안산의 기독교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재도약을 하고자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안산시 기독교의 새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라고 천명하였다.

안산지사 백운성 기자

를 일그러져 있었을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차라리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의 얼굴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런지도 모른다. 당연히 그들에게도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받아

를 받으셔야 했기에 더욱 더 견디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사건 자체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요, 그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없었던 것은



이기가 쉬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형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억울함과 분노도 훨씬 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으로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게 되는 최고의 형벌과 고통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주시기 위한 이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며 평화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 세상

를 더러운 얼굴 보다 가장 존귀하고 성스러운 얼굴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53:2) 사진작가 곽환근 목사(공주 두란노교회)



지저스타임즈 · 언론부흥사협의회

“본사 부흥사협의회는 뜻을 같이할 부흥사를 환영합니다.

또한 집회를 신청해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기도하며 집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사 장	대표이사	명예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사장	부사장	상임고문	자 문	자 문	수석상임이사	사무국장	총무국장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정기남 목사 (발행인)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강오선 목사 (순복음받는교회)	이윤자 목사 (부천뱌뱌중앙교회 부목장)	박한규 목사	이홍희 목사 (축복받은교회)	한홍교 목사 (호헌총회장)	박형희 목사 (성원교회)	곽영민 목사 (예복부흥사 대표회장)	백운성 목사 (안산신자사장)	곽동훈 목사 (대신총회부총회장)	홍한표 목사 (경북총회사무총장)	박동호 목사 (뱌뱌교회)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박용숙 목사 (주성향경뱌뱌교회)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실무이사	실무이사	실무이사	실무이사	총무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및 회계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샘교회)	이기학 목사 (포항아름다운교회)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장)	이상중 목사 (새울진교회)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곽관근 목사 (두란노교회)	김상의 목사 (신봉교회)	노병주 목사 (취재부장)	김선우 목사 (언부협공동회장)	배정희 목사 (임음교회)	배문자 목사 (그리스산교회)	류기형 목사 (함동총회대뱌뱌 회장)	조영만 목사 (시문교회)	김부경 목사 (갈보리교회)	유순숙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김창숙 목사 (예능부기자)	우제성 목사 (영동월교회)	배영자 목사 (금천시문교회)	



지저스타임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경음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jpj@naver.com

요한계시록 3장 강해(25)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심

〈지난호 이어서...〉

다윗이 다윗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자만 들어가고 허락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다윗이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그곳에 들어갈 자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곧 천년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쇠로 열어주시면 천년왕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분깃이 보이고, 복이 보이고, 또 그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으로 열어주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지는 천년왕국에는 순교한 자들이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들어가며 이들이 재림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며 복을 누린다는 이 말씀으로 열어 주십니다.

특히 계시록은 주님이 재림 하실 때 흰 옷 입은 자가 재림 주를 맞이하는 그의 신부라고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계 19:7-8). 이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게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 말씀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주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은 천년왕국의 복을 가르쳐 준 것을 다시 담아버리거나 못 본 것처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은 천년왕국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로 담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여러 교회를 비롯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천년왕국도 없고, 첫째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담아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느 유명한 목사가 주장하는 휴거 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을 겪은 후 휴거를 통해서 재림 주님을 맞이하되 휴거하는 자 모두 부활하듯 변화된다는 주장입니다.

부활체로 변화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애기를 낳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닫힌 것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굳세게 불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잡고 있는 자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담아버린 것입니다.

8절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하신 것은 아주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8절의 “열린 문”은 7절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 준 문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7절에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 준 자에게 닫을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천년왕국을 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어서 허락한 것을 말합니다. 8절의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증거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의 열린 문을 주셔서 그에 따른 말씀을 받은 것으로 증거하여 합당한 자에게 열리는 역사를 하게 하는 진리 증거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를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듣는 것보다 병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그들의 능력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놓으시고 또 닫을 자가 없게 하신 그 말씀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적은 능력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능력 같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최고의 큰 능력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굉장한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유대서까지보다 더 큰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대로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면 권능 즉 예언의 권세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릴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신앙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계속 나가서 증거하고, 변호하고, 시인하고,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오늘날 환란 전 휴거나 첫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유명한 목회자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그들이 거짓말쟁이며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요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어 주신대로 열린 문으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말쟁이들은 핍박하고 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증거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참된 것이고 거짓말쟁이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키시나요? 계시록의 진리말씀을 대적하고 정죄했던 거짓말쟁이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여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증거한 말씀이 참입니다.”하고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고통스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언제 벌어질까요? 주의 재림 때입니다. 계 17에 주 재림 때 애곡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사탄에 속한 자들이 우리들 향해 잘못됐다고 하고 정죄한 말씀이 오히려 그대로 이루어져서 순교한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그때서야 그들이 거짓되고 사탄에 속한 자였음을 시인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는 신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시대에는 영적 유대인들이 사탄에 속한 자일지라도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란 때도 환란 중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증거할 때 휴거 믿는 사람들은 우리 발 앞에 와서 경배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말씀이 잘못됐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증거한 말씀대로 후 3년 반에 예비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수이며 대다수는 순교한 우리가 재림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시록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고통스럽고 육박 받고 정죄 당해도 9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 목양칼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미성년자에게는 상속이 주어지지 않다가 성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상속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년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후경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 노릇 하는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성년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창조주의 공급 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어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은 자신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요 교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을 지켜서 위하여 행하는 것을 옳다 여기게 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들을 자기 노력으로 지키게 하므로 어린아이로 만들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 4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행위(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자 하는 노력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예) 죄사함과 씻음, 화목케 함, 거둬냄, 성령, 양자의 영,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 영생,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하심, 구원하심, 옛 사람을 죽여주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 빛이 되게 하심, 소금이 되게 하심,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심,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므로 우리가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심 등등)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육체의 노력을 그치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먼저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에서 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7: 21~8: 4).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려 하였는데 아직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서 그리스도가 조금도 유익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은 포도주는 의문이요 옛 언약이요 율법이고 헌 부대에 옛 언약의 정신, 곧 율법 정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더”라는 허무맹랑한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교만의 고백입니다. 새 포도주(새 언약 곧 복음과 은혜)를 이러한 교만의 고백 안에 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다시 바꾸어 자신이 다 지켜 행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갈 5: 4).

왜냐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 10)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새 부대는 신축성 있고 팽창력 있는 새 마음이요 새 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한 새 부대는 새 언약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곧 갈 36: 26~27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라”고 하심 같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옛 언약, 곧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계명을 사람이 지켜야 했기에 실패했지만 새 언약 곧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실패할 수 없고 허물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다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노력을 그치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한 후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우리가 될 때 모든 죄에서 벗어나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렘 31: 31~3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춘복 목사

남현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동기 목사

서울소망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고성규 목사

다니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승훈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곡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사금열 목사

예심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발기기도회 오후 9:00
십자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 주(월-목)정기 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매월 넷째 주(월-목)정기집회(매일 밤 10시 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로 임신형 목사

중흥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11

II.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지나호 이어서...〉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과 행복의 상징이다. 그동안 자신이 태어나 성장하며 정들었던 고향 땅, 평생 쉼아 온 부와 평안과 안정의 보금자리를 다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나라고 하신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누리며 붙잡고 살았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갈등과 번뇌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처럼 회막 문지방에서 은혜의 물이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감격을 맛보게 된다.

넷째,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온 자들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주세요’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8장 10-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

다섯째, 은혜 받은 자들이다.

회막문은 은혜의 문이다. 회막문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을 주신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요, 그들은 구원받을 자들이요, 축복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제2단계: 성막틀 단계

(출 27:9-19; 38:9-20) 짐승을 끌고 움(제물) - 짐승에게 안수 - 짐승 죽임(성화자복·회개) (죄의 전가) (대속) 성막틀의 구조와 의미 구조: 회막문에서 성막 앞까지의 공간으로, 성막틀의 장은 백 규빗이요, 광은 오십 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오 규빗,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었음(출 27:17-18). 짐승 잡는 도구들과 짐승을 매어놓기 위해 놋으로 만든 말뚝들이 있음. 의미: ① 죄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장소 ②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대속적 장소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상징적 의미 내용: ① 성막틀은 죄인의 단죄 장소이다. ② 왜 죄인인가?, ③ 죄를 피할 수 있는가? ④ 회개만이 살 길이다. 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⑥ 다른 믿음의 실체들 ⑦ 어린 양의 마지막 비명

1. 성막 틀과 죄

1) 성막틀은 죄인이 가는 장소이다.

성막 틀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회막문 안으로 들어와서 최초로 맞게 되는 곳이다. 그곳은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심판의 장소요, 형벌의 장소요, 또한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심판받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고, 죄의 전가를 통하여 자유함을 받아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로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으신 순수 자체 이시므로 온전자요, 완전자요, 거룩하신 선과 사랑 자체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므로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의 본체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여 죽음의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심어 주고 근심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 중에 살게 하였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희망의 끈이 있다.

그렇다면 이 양심(良心, Conscience)이란 무엇인가? 이 양심은 저울추와 같은 것이다. 양심의 저울에 비추어 볼 때 선과 악 중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다. 선으로 기울면 기쁨과 희락이 오고, 악으로 기울면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평형을 유지하려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신 첫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다. 또한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뇨?’였다.

3) 죄를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욥11:11-14),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시 17:1-6),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히 4:12, 시 139:4),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살피고 (감찰하심) 계신다(시 11:5, 창 5:13). 그리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롬 2:1-3).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2장 3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하였고,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였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과 행한 대로 보응(갚아줌)해주시는 기준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이다(마 7:21). 이 죄들은 시초가 욕심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이 욕심의 속성은 죄를 낳게 되고, 죄의 속성은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보내주셨다. 성막 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얻기 위한 두 번째 장소로서, 죄인들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장소이다. 왜냐하면 성막 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 깨달아지며,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함을 체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화인 맞은 양심들이 되살아나고 비이성적으로 타락 속에 살았던 자기의 추한 과거들이 생각나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장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묵묵한 자는 발박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요 13:10)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람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9)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지나호 이어서...〉

5. 한국 근대교육의 사상적 흐름

1) 국가주의 교육사상

1880년대에 오면서 구한말정부가 취한 국민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교육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의 근대적인 교육정책으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가장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895년에 발표된 고종의 칙서로서 교육입국의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 조서에서 고종은 “교육을 국가보존의 근본으로 여기고 임금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고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국가가 바로 서고 세상의 일에 무지몽매한 자는 필요가 없다.”고 하여 교육이 없는 국가가 설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백성을 교육하지 않으면 국가를 부강하게 하지 못하고 독립하여 융성하는 제국은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고 교육의 최선이라 교육은 실로 국가보존의 근본이다.”라고 하여 국가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은 1880년대 개화사상가에서 주장되었다. 개화사상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고, 온건파는 당시의 집권세력으로 동도서기론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서양의 기(器)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서양 과학기술의 습득과 채용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道)는 유교윤리가 천직의 성에 따른 영원불변의 도리이므로 이것을 소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의 도덕이나 사상은 그대로 지키되 오늘날 우리가 부족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여자는 것이었다. 동도서기론은 중국의 양무(洋務), 자강(自強)사상과 비슷한 사상체계이다.

3)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1880년대부터 일본·미국·중국을 거쳐서 유입되었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의 이론적 기간이 되는 동물세계에서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인간사회에서도 적용된다는 논리이다. 190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당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드는 약육강식의 국제정세를 알려주었고, 우리나라도 약소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김昌龍 牧師
(하나님미디어인신교회)

서는 하루 빨리 근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진화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유길준인데 그는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는 경쟁을 통하여 진보 발전한다는 주장을 하고 국가가 경쟁에 승리하여 부강하려면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국민교육론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한 국교육에도 영향을 주어서 경쟁하는 교육체제를 만든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6. 을사조약전후의 교육상황(1902년-1910년)

1) 사립학교들의 발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 기독교의 선교의 열매는 학교들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서울,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남부지역 멀리 관서지방 평양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학교들이 세워졌다. 을사조약이후 나라를 빼앗긴 후 교육에 대한 백성들의 열망은 더 뜨거워졌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 당시 선교사로서 최전방에서 사역을 펼쳤던 케이블 선교사의 보고서를 참조하면 “한국의 국권상실은 한국인의 교육발흥에 자극제가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는 일에 매달렸다 한국 청소년들과 노인들에게 지지도 록 시달렸다. 사방에서 학교를 세워 줄 것과 그들이 공부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 시켜주지 못해서 고민에 빠졌다. 교사와 서양학문에 대한 요청의 함성은 대단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육자원과 교육시설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선교의 실패와 이 민족에 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사방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는 민족의 함성을 표출 하는 곳이 되었다. 특히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정신을 이어 가려는 뜻있는 사람들은 앞 다투어 학교를 세웠다. 이에 교

회들이 이일에 선두로 교회마다 주일학교와 매일 학교를 세웠다.

국민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려 하였다. 그 이유는 공민학교는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치는 곳 이고 사립학교는 백성들을 위하여 개인의 존중과 삶에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교육으로 인식되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적으로 복음과 사랑과 신문화와 교육을 전한 선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커졌기 때문이다.

2) 일제의 사립학교의 통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나라의 흥망이 풍전등화 와 같을 때 뜻있는 사람들의 열정은 학교의 교육에 힘을 모아졌다. 아마 그 선각자들의 노력은 100년을 내다보는 눈을 가진 것 같다. 백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민족의 항학열과 고학력의 국민을 배출한 것이다. 일제의 탄압은 오히려 우리국민에게 교육 필요성을 높여주었고 미래에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

1910.2월 한일 합방이 시작될 때 한반도 전역에 세워진 감리교회와 장로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대학		
신학교	1	143
중학교	15	1,138
소학교	589	13,429
합계	605	14,708
일요학교	942	87,178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의 수와 학생수가 집계되었는데, 장로교회 총 학교 수 및 학생 수 이외의 파악되지 않은 학교의수가 집계된 수보다 더 많다고 한다. 우후죽순으로 많아진 학교들의 교사를 구하기도 힘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대학	1	3
신학교	1	279
중학교	4	413
소학교	194	5,738
합계	200	6,423
일요학교	230	22,892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장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웅 목사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063)244-2374 010-9696-6377

주일 예배 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국 목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엘중앙교회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웅숙 목사 (우순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641-0687 H.P 010-7405-9191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동급만장-1급 ~3급자 환영)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현 목사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완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조예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조예/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촌(직업훈련소)



세복협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복음화대성회 및 목회자영성세미나

“목회자 200여명 초청 목회자영성세미나 개최”

세계복음화협의회(이하 세복협)은 운영총재인 한영훈 목사(대표 회장 설동욱 목사를 필두로 상임회장 박태남 목사, 상임총무 문은수 목사, 사무총장 오인석 목사, 그리고 김성현 목사 등이 함께 필리핀 안티폴로(Antipolo City) 지역복음화대성회 및 목회자영성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지난 1월 30일 월요일 오전 8시 비행기로 출국하는 세복협 관계자들은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대성회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목회자영성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등 성화와 목회자세미나 등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은 필리핀 북부 루손 섬 칼라바르손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리살 주의 주도이며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며 칼라바르손 지방의 한 도시이다. 도시와 시골이 함께 공존하는 안티폴로 지역에서 세복협은 먼저 가장 빈촌 중에 하나인 뽀따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복음화대성회를 진행했다.

뽀따이 지역은 최근 일정부분 도로정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차량 출입이 쉽지 않았을 정도로 빈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 입구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있을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고 식수를 구하기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 이단 활동이 강화된 뽀따이 지역에서 세복협은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매진했다.

세복협은 이후 따팔링 지역으로 이동해 따팔링 교회본당에서 복음화대성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따팔링 지역은 뽀따이 지역과는 달리 작은 소도시 규모로서 이 지역을 복음

화 한다면 필리핀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 거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복음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

특히 따팔링 교회는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가 섬기는 서울 예정교회에서 세운 교회로 교회와 함께 국제학교를 진행하여 실력있는 교사를 세워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미래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후 세복협은 나사렛 신학대학교를 방문을 하고 나사렛 신학대학교는 필리핀 안티폴로에 자리 잡고 있는 신학교로서 복음주의 신학이며 수많은 필리핀 목회자후보생들이 복음주의 신학을 통해 건강한 목회자로 훈련받고 있다.

특히 세복협은 안티폴로 지역 목회자 200명을 나사렛 신학대학교로 초청하여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목회적 도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세복협은 필리핀의 열악한 목회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그들을 위해 쌀을 준비하여 나누고 정

성된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을 하고, 또한 귀중한 선물 등을 전달하여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세복협은 필리핀 지역복음화대성회와 목회자영성세미나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3일(금)에 귀국을 했다.

다음은 세복협 관계자들이 지역복음화 대성회를 통해 선포하게 된 세미나 주제이다.

영적지도자와 리더십_한영훈 목사(히브리어 11:24~32)Spiritual leader and leadership_Pastor. Han Yeounghun (Hebrew 11:24~32) 동기부여자로서 목회자의 역할_설동욱 목사(에베소서 4:11~12)The role of pastor as a motivator_Pastor. Seoul Dongouk (Ephesians 4:11~12) 예수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_박태남 목사(요한복음 15:1~11) Jesus didn't command us to bear fruits!_Pastor. Joshua T. Park (John 15:1~11),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_문은수 목사(사무엘서 7:1-17) The church that is in

the mighty hands of God!_Pastor. Moon Eunsoo (1 Samuel 7:1-17) 유대인의 상징주의 오인석 목사(시편 102:3) Jewish Symbolism in Bible_Pastor. Oh Inseok (Psalm 102:3) 하나님의 싸우시리라_김성현 목사(출애굽기 14:14~21) God will fight for you_Pastor. Daniel Kim (Exodus 14:14~21)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세월호 사고는 해상교통사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번 이를 퇴임을 앞두고 그간 연구 정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육성으로 남긴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헌법 13조) : 형벌(죄)을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특검의 태생이 잘못되었다. 2. 특검법이 특정한(박대통령, 최순실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4. 법치주의 위반(헌법 12조 1항) :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만들고) 있다. 탄핵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죄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탄핵을 먼저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될 수 없다. 5.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 : 과거 범죄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대통령과 그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는 인물들이 주동하여 가결한 탄핵을 평등권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 재단 설립의 규모가 역대 대통령들



이 만든 여타의 재단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역대 대통령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규모가 월등함에도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탄핵은 평등권을 침해했다. 힘이 있는 세력에 의해 법치용이 불평등해선 안 된다.

6.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위반(19조, 20조) : 대통령도 자기 신념과 종교를 가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사생활을 파헤쳐 어느 한쪽의 주관으로 예단하여 잘못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더군다나 일국의 얼굴인 대통령을 온갖 보도매체가 5-60일에 걸쳐 온통 도배하듯 전담하였다. 7. 11조 성직차별금지위반, 제10조 불가침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 국회의원들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미용, 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리는 KBS 작은음악회



이번 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작년 여름에도 구치소에서 대규모 공연을 관람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색다른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도 외

부와의 단절감과 수감생활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명랑한 수용생활과 출소 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사고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다

그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해카페리호 사고시에도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11. 국민의 주권 침해(1조) : 국회의원의 비밀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데는 삼권분립(40조, 66조 등)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지금은 없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이나 해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집단의 목적 달성(탈취)을 위해 다수결로 몰아간다면 어느 정권이든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통령 해임은 여론으로 할 수 없다. 12. 탄핵사유(17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 경우 그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13.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국가 기밀 누설 주장은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특히 태블릿PC건은 그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검찰은 국가기밀 누설한 것은 없다고 결론). 한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재산(태블릿PC)을 인수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개한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은 헌법을 현저히 침해했다. : 국회의원들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미용, 의

말미에 이미 우리는 국민저항권에 부딪히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당부하시길 애국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애써 지켜온 나라, 힘들여 만들어진 선진국을 바로잡을 것을 부탁하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는 사람들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바람을 일으킨 것에 속지 말고 애국시민으로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제6회 신학 세미나

주제: 성경 원형(본질) 회복

대표 회장



지왕철 목사

상임회장/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

사무고문



이범성 목사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

지도위원



정명구 목사

지도위원



조조복 목사

총무



곽영민 목사

강사



장한국 교수

강사



임준제 교수

강사



정명구 교수

■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오후 1시~오후 4시
■ 중식, 간식, 교재 제공.

■ 장 소 : (서울)여전도회관 2층 루이시 홀
■ 홈페이지: http://www.hankibo.co.kr

■ 주 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신학위원회 Tel.02-2608-2190

합동보수 2017년 연합신년하례예배 드려

예장합동보수(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한중,서경,서인노회 등 3개 노회 연합으로 지난 1월 16일(월) 오전 11시 2017년 신년하례예배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여주전원마을에서 드렸다.

한중 증경노회장 이세중 목사의 인도로 1부 신년감사예배가 시작되어 서경노회장 김주현 목사가 기도를, 한중노회장 김국대 목사는 “축복의 문이 열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신년사를 통해 총회와 각 노회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한복회 목사(한중노회 부회)가 헌금기도를, 김관호 목사(한중노회서기)가 광고를 제1부총회장



전예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순서는 한중노회 직전회장

조영만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시작되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발달 목사(서경노회), 총회와 총회신학교를 위해 서재식 목사(총회 회의록서기), 노회와 지교회 부흥을 위해 박용순 목사(서인 증경노회장), 여주전원마을과 동천교회를 위해 임원택 목사(한중 증경노회장), 언론사 지저스타임즈 및 J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하는 등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한편 예장합동보수총회 신년하례예배를 지난 1월 12일(목)오후 1시 30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동천교회본당(총회장 이규필 목사사무)에서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란 제목으로 총회장 이규필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으며,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황해도 도민회장 오진형 회장 취임식 성대하게 열려

‘황해도 출신 2세들의 장학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고향을 떠나 한국을 거쳐 미국까지 와서 생활하고 있는 실향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황해도 출신들의 모임인 황해도 도민회 오진형 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있다. 특별히 6. 25동안으로 인하여 강제로 고향을 떠난 우리 한인들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미주에서 살면서 황해도 도민들이 뭉쳐서 도민회장을 선출하고 회장 사임의 일환으로 2세

들의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장학 사업을 하겠다’는 오 신임 회장의 취임 인사말은 매우 훌륭한 꿈이요 계획이다

지난 11일(수)오전 11시 나성동산교회에서 김병조 총무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 되었고, 국기대한 경례, 이해경 여사의 선창으로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제창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마동환 장로의 개회 기도와 내빈 소개와 번무성 전회장의 이임사 그리고 오진형 신임 회장의 취임사 이어서

이기철 1A총영사의 축사와 이복 5도민회 회장 박철홍 회장의 축사



그리고 이해경 여사의 축가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어서 오바마대통령 봉사상을 수여를 하고, 황해도 도기를 인수하고 오진형 회장 취임행사를 모두 마쳤다.

미주 한인의 날 12주년 기념 및 이민 114주년 기념 감사 예배드려

“진정한 자유는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 따른다”

미주 한인의 날 12주년 기념 및 이민 114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남가주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 한인의 날 12주년 기념 및 이민 114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남가주한인목사회(김영구 목사)와 남가주교회협의회(최순길 목사)가 공동 주관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이 행사는 지난 1월14일(토) 오전 10시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에서 최순길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 되었고, 김중용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수석 부회장)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운영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증경 회장)가 설교했다.

이 박사는 주재임 목사(교회협의회 부 회장) 봉독한 이사야 55장 7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과 오늘 보문을 통해 상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와 어두운 한국 땅에 복음이 꽃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다. 오늘 이민 114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희생과 고난과 역경과 헌신이 낳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에버그린 중창단이 헌금송을 부르고 김재중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감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에서는 미국 국가와 애국가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드리고 백지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 되었다.

*환영사 이병만 회장(미주한인재단): 여러 목사님들께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좋은 단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를 소원하였다. 이제 한국과 미국 모두가 여수선

하지만 기도로 극복해 나갑시다.

*격려사-이종용 목사(미주한인 날 기념행사 대회장):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수고하신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 뿐이다. 이제 앞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함께 출발을 합니다.

*소프라노 지경 씨의 독창 순서 ‘여찌하여야’,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고, 권영신 이사장(대한민국 민회)과 샘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 부회장)의 축사의 말씀,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전회장)와 손병주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 부회장)의 축사의 축사로 마무리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헬렌 김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의 기도로 마쳤다.

목사코너-107-

하늘에 속한 몸도 있으니

(고전 15:39-41)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육체뿐만 아니라 짐승육체, 새의 육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물고기, 새까지 육체라 표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 일까? 이는 분명 신령한 영적 의미를 가진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사람육체이고, 깨닫지 못하고 영혼 없는 짐승같이 이 땅에 속해 사는 육적? 세속적 신앙인은 짐승과 같으니 짐승육체가 아닌가?

죄악세력을 벗지 못한 신앙인은 물 떠나지 못하는 물고기 육체와 같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처럼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며 섬김 받기만을 좋아하는 신앙인은 새의 육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도 있으니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얹힌바 된 하늘에 속한 몸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요. 이들은 곧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으로 사는 신앙인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복락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땅에 속한 몸도 있다고 했지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을 기쁘게 여기며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는 마귀에 속한 자로 볼 수 있으니 마귀는 세상 복, 세상부귀 영화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다 준다고 했지요. 결국 멸망으로 끝날 잠시 누리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을 거둔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씨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라 했지요. 즉 생명이 씨이니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의 영적 양식을 가리킨 것으로 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은 해, 달, 별의 영광이라고 세분했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진리총회장)

습니다. 여호와와는 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지요.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생명 살리는 역사는 해의 영광이요, 달은 반사체이니 침체된 영적 어두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깨우쳐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회개케 하는 것, 또는 물질?은사?기도 등으로 간접적으로 영혼 살리는 역사는 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아 복음?진리로써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종들은 별들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특히 7 급춥대 사자를 일곱 별이라고 한 그 영광이 곧 별의 영광의 최고봉이지요.

장한국 총회장 2017 신년특별수련회 열어

다니엘서를 통한 주 재림 대비 신앙을 갖자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 1월 9일(월)-11일(수)까지 대구시 유성교회(오진철 목사)에서 총회장 장한국 목사를 감사로 2017년 신년 특별수련회를 개최했다.

첫날 특별수련회 강의에 앞서 오후 4시 총회교육부장 박민규 목사의 사회로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신년축사를 시작으로 교육부장 김성덕 목사가 기도를, 유성교회 성도들의 특송, 제자수도원 김성희 원장은 “하나님의 성직자로 된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교육부 회계 김명수 목사의 봉헌기도, 총회서기 오진철 목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최광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특별수련회는 2박3일간의 강의를 끝으로 총회 회의록서기 배만복 목사의 폐회인도, 총회 회의록서기

김장미 목사가 기도, 대한노회원 일동 특송을, 부총회장 조조복 목사가 설교를, 총회서기 오진철 목사의 광고와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신년축사에서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으며, 새해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안, 위로, 큰 소망과 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이 한해 큰 소망을 갖자고 했다. 이어 아무리 시련의 밤이 깊어도, 또 장차 큰 환란의 밤이 올지라도 주 재림의 그 새벽은 반드시 오며, 주님의 날은 더 가까워졌고, 또 주님은 셋별같이 우리 심령을 늘 비쳐주신다면서 우리는 주님이 칭찬



받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신학위원회(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의 주관으로 2017년도 신학세미나 주강사로 선정되어 (2월, 4월, 8월, 10월, 12월)6회에 걸쳐 강의를 한다며 많은 기도와 참석을 요청했다.

담임 조강수 목사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니라.(사60:1)”

영광교회

장로회

●담임목사: 조강수

●부 목사: 이주홍

●협력선교사: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장 로: 임청수,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주영

●전 도 사: 양승숙

●성가 대장: 박남주

●지 휘: 박성진, 이희선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30

수요 밤예배: 저녁 8:00

금요철야예배: 밤 11:00, 새벽예배: 새벽 4: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후 1:00, 학생부, 청년부 연합예배: (토)오후 6:00

● 주소 : 인천 서구 장고개로 336 (구.가좌동 4-24) ● Tel) 032-575-1654 Fax)032-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2017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아름다운 인격 성경: 시편 45편 8-9절 찬양: 찬송가 89장

왕의 오른쪽 자리는 존귀와 특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2:9)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그리스도의 신부 성경: 시편 45편 10-12절 찬양: 찬송가 175장

본문은 왕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왕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 된 모든 성도는 옛 사상과 사고방식, 옛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상, 즉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며 옛 생각과 풍습과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만 경배하며 따라야 합니다.

제목: 천국의 기쁨 성경: 시편 45편 13-15절 찬양: 찬송가 64장

왕후 그리고 시녀들까지도 왕궁에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의와 영광과 희락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그 천국에는 슬픔과 애통과 아픈 것이 아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이 복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왕의 영광 성경: 시편 45편 16-17절 찬양: 찬송가 140장

왕의 아들들 즉 왕자들이 열조를 계승하고 온 세계의 군왕으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듯이 성도들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잊혀 가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분에 대한 풍성한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의 왕들로 삼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제목: 성도의 피난처 성경: 시편 46편 1-3절 찬양: 찬송가 70장

세상에는 환난들이 많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천재지변도 있고 전쟁도 있으며 흉년도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질병과 사고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힘과 도움으로 삼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탁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돼 주시는 하나님을 경의하며 그분의 힘과 도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은혜의 시냇물 성경: 시편 46편 4-5절 찬양: 찬송가 304장

본문의 ‘한 시냇’은 흥용한 바닷물과 대조되는 잔잔한 시냇물을 의미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입재와 역사를 상징합니다. 참고로 한 시냇가 나뉘어 흐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두 사람이나 한 두 교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함께 누리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냇물처럼 입재하셔서 기쁨으로, 그리고 즉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우리 편 성경: 시편 46편 6-7절 찬양: 찬송가 230장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사육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한 그 ‘우리’는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경대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직 성경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의 편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목: 와서 보라 성경: 시편 46편 8-9절 찬양: 찬송가 79장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관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상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창조와 섭리의 일들, 특히 성경에 기록된 그의 구원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제목: 그분만 성경: 시편 46편 10-11절 찬양: 찬송가 405장

하늘의 천군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그를 경의하며 회개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환난 때에 그들의 피난처가 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과 보장, 구원과 도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십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알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환난 때에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로 피해야 합니다.

제목: 찬양할 이유 성경: 시편 47편 1-2절 찬양: 찬송가 31장

우리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분의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의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놀랍고 기이하시며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성경: 시편 47편 3-4절 찬양: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서 만민과 열방을 우리의 발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을 복종시키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과 하나님께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교회는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택하심 받은 자들로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제목: 찬송의 자세 성경: 시편 47편 5-7절 찬양: 찬송가 69장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온 땅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즐거운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통소와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되, 즐거운 목소리로, 가능한 한 모든 악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열방의 왕 성경: 시편 47편 8-9절 찬양: 찬송가 24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극히 높

새 사람

하나님의 목표는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의 상태는 감사와 기쁨, 평화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희락과 화평이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한 지 10여년 전후하여 기쁨과 자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풍산바람에 바람이 짙 한 상태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세요.” 데굴데굴 구르면서 외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분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옛사람은 조상 마귀를 닮아서 거짓에 능하고 살인과 욕으로 사납습니다(요 8:44). 세상은 악에 속하였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 긍정적 사고, 훌륭한 인격자로 세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사람입니다(엡 4:24).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복들은 새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속에서 보너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한 새사람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면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온갖 보화가 마음과 영에 쌓입니다. 사실 이러한 재미에 세상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지식이 축적되며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스스로가 매우 명철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며 사람과 사건을 잘 해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필자는 예전에 미련하고 험기도 많고 약한 목사였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지만 부족하여 목회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쉬운 것

은신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에게 복종하는 자는 영생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과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열방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분만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제목: 하나님의성 성경: 시편 48:1-3절 찬양: 찬송가 515장

하나님께서 특히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침입한 열방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산이며 거기에는 그분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그분을 극진히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 곧 참 교회에서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성구 목사
다니엘교회 담임/본지 상임이사

이 목사로 목회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쉽고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게 되므로 쉬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니엘도 우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도 자신을 죄인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내면세계와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성경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모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바울 선생은 새사람이 된 자기 상태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상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수준과 경지에 대한 외침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여 새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면화된 자기의 상태 이야기입니다. 문자로 이해하여 “그런줄 믿습니다” 하므로 성경과 우리는 절 근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갔습니다.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목표는 사람의 인격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이듯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새사람은 존재론적 변화요 완벽한 자기 축복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빛어전 영혼의 상태입니다. 새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소진우 목사 2016년-2017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5년 9월

31-1 언론사 연수원 수련회 대표회장(조강수 목사)
1 오산리교회(장남석 목사) 원장
3 성산수양관(문호준 목사)
7-11 은누리복음화(임기호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자대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장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장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원)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9 기쁨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산수양관(반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6-18 햇빛교회(함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3-25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안마선교회(장문 목사)
7-9 삼룡교회(고정인 목사)
14-16 정동진 산성교회(최낙현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8-30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4-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11-13 한동교회(신현덕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1 에덴교회(양희목 목사)
24-27 선일교회(이민석 목사)

2016년 2월

1-4 감람산기도원(이복관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7 대구열린문교회(류창호 목사)
22-26 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3월

봄 철 축복 대 심 방 의 달

2016년 4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7 안산세광교회(윤주호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25-27 양문교회(노희식 목사)

2016년 5월

2-5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1 한우리교회(문준호 목사)
15-18 예복교회 불철부흥성회
23-26 초대총관교회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6월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 새생교회(홍정민 목사)
6-10 필리핀 제2교회(한남식)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5 사랑의교회(최홍식 목사)
16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17 신나는교회(이정기 목사)
20-24 선교사신학생어른세미나
27-30 사랑제일교회(오만근 목사)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익 목사)
18-21 소망교회(최유식 목사)
25-28 에덴교회(이종서 목사)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5-18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22-25 감람산기도원(이복관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6-28 다사랑교회(방종현 목사)
29 군산영교회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10-11 정기노회
17-21 임원수련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4-27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
31-11, 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5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7-9 삼룡교회(고정인 목사)
14-16 경천교회(이영철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심방)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23 총회영성대회
28-30 행복예수원교회(이영건 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은사랑교회(최태식 목사)

2017년 1월

2-4 가정성경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16-18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7년 2월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6-9 감람산기도원(이복관 원장)
13-17 선교사세미나
20-22 초대총관교회(김복남 목사)
27-1 중흥교회(서종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수도권지역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 분양

목사님, 성도님께 희소식!! 노후안식처
노후대책으로 마련된 살기 좋은 여주
청정지역 30여채 전원주택

전원주택모텔하우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여주 전철역 개통)

오픈

주인이 직접 분양합니다.

단지 내 수양관 준비 중입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개통됨
-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개통됨.
-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전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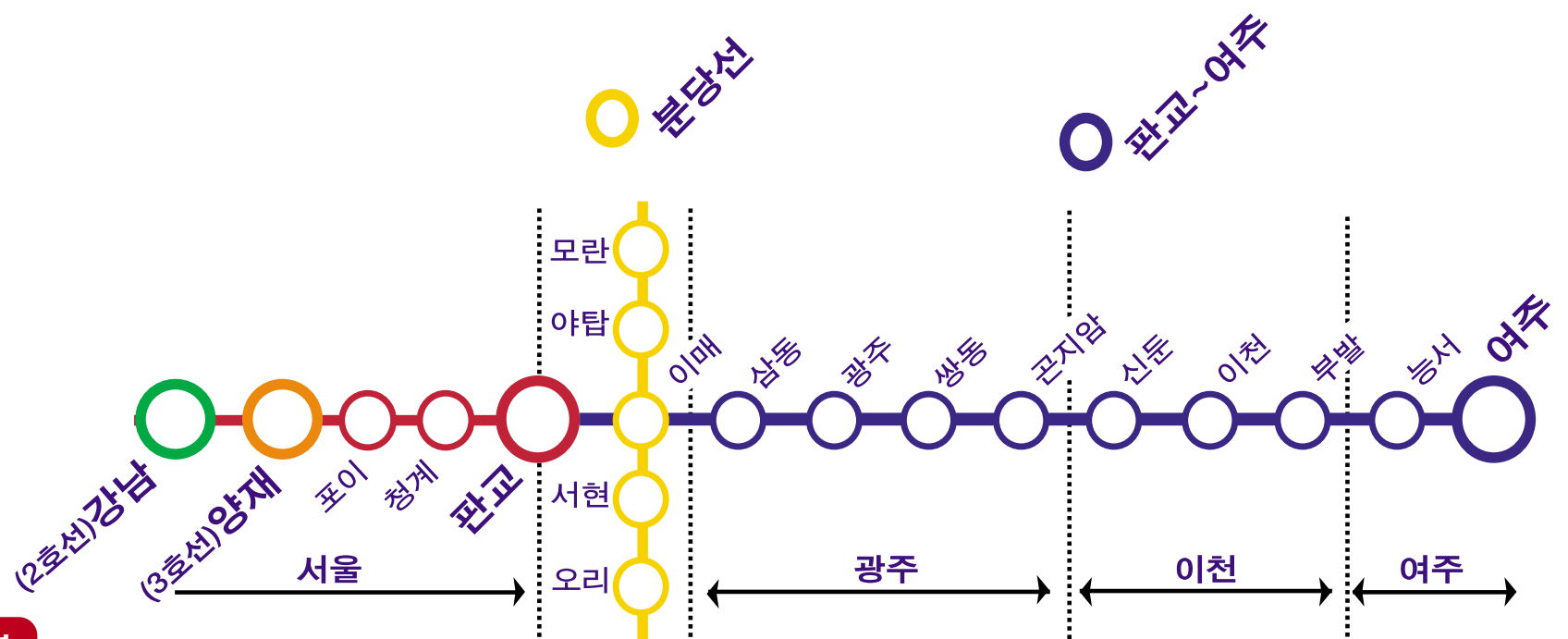
- ♥ (1억6,500만원 / 1억9,500만원)
- ◆ 대지 100평, 도로(별도 15평), 주택 20평(1층)=1억6,500만원
- ◆ 대지 100평, 도로(별도 15평), 28평(2층)=1억9,500만원
- ◆ 고급 소파, 대형TV, 고급 싱크대, 정원, 잔디, 과일나무, 꽃나무, 팬스, CCTV, 텃밭 30평
- ◆ 넓은 진입로, 주택단지 중앙로 7.5m • 여주상수도개설
- ◆ 농협, 마을금고, 시중은행 대출 60~70%까지 가능(이자 3%대).

교육환경

- ◆ 초등학교, 여중 · 고등학교, 남중 · 고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기 타

- ◆ 전원주택에서 1km= 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 축협,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 대형운동장 등.
- ◆ 한강 자전거도로 3km, • 이포보 4km,
- ◆ 세종대왕릉 12km, • 명성왕후 생가 15km, • 여주 도자기 공장 5km.



분양문의
02) 854-1355

I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 010-5468-6574, **032-672-3031**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